

‘문화로 회복하는 일상 · 도약하는 전주’

시, 문화 · 관광 · 체육 분야 5대 추진전략 제시... 문화예술인 지원 · 전주다운 문화콘텐츠 강화 등 추진

전주시가 전주시립미술관과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 전시관 등 문화도시의 위상을 높일 인프라를 강화하고, 조선팝 성지 프로젝트 등 전주다운 문화콘텐츠 육성에도 공을 들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스포츠산업을 강화할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에도 속도를 내고, 혁신도시 다목적체육센터와 서부권 생활체육형 국민체육센터 등 생활체육 기반도 확충하기로 했다.

시는 24일 문화관광체육국 신년브리핑을 통해 ‘문화로 회복하는 새로운 일상, 문화로 도약하는 전주’를 비전으로 문화 · 관광 · 체육 분야 5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5대 추진전략은 ▲문화생태계 회복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비대면 콘텐츠 사업 및 디지털 뉴딜 사업 발굴 추진 ▲전주다운 문화콘텐츠 및 기반시설 구축을 통한 국제관광도시 조성 ▲문화유산자원을 활용한 세계적인 역사문화 도시 조성 ▲시민들을 위한 지역 체육시설 조성 등이다.

지난해 7월 조직개편을 통해 예술인 복지팀을 신설한 시는 코로나19로 막

대한 타격을 입은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다음달 8일까지 문화예술인 1인당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청년예술인들의 주거안정을 도울 팜복동 청년 문화예술인 임대주택 등 주거공간을 지원하고, 서노송동 예술협업 창작 지원센터와 같은 작업공간도 마련해 주기로 했다.

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비대면 콘텐츠 제작 공간 확충에도 주력한다. 팜복동예술공간에는 다음 달까지 미디어 교육실을 구축해 비대면 영상 예술터로 제공, 한벽문화관에는 5월까지 비대면 전용 공연장을 만들기로 했다. 남부시장 내에는 2022년까지 온라인 공유스튜디오, 교육장, 전시공간 등이 포함된 서브컬처복합문화 공간을 조성한다. 또 정부의 디지털뉴딜 정책에 맞춰 K-Film 제작기반 영화산업 허브 구축 및 한국형 영화효과음원 사운드 탬 구축, 스마트 헬프데스크 설치 등의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문화도시의 위상을 높일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전주다운 문화

콘텐츠를 강화해 세계여행도시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전주시립미술관 ▲전주독립영화의 집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 전시관 ▲천주교 세계평화의 전당 ▲기독교 근대역사기념관 ▲불교 세계평화명상센터 등 문화기반시설 조성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전주국제영화제 ▲전주비밀밥축제 ▲전주한지문화축제 ▲전주대사습놀이 등 문화축제 세계화에도 힘을 쏟는다. 특히 올해에는 조선팝 하우스 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전주를 조선팝의 성지로 만든다는 계획도 세웠다.

아울러 글로벌 웹캠센터와 경기전 전통정원을 조성하는 등 한옥마을 리브랜딩에 힘쓰고, 서화예술마을을 아트로드와 여행자 관광, 완산철보 한방마루 공원, 완산병기 1973 등 관광 외연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전주만의 문화유산자원을 활용해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로 도약한다는 복안이다. 전라감영 서편부지와 전주부성 복원에 나서고, 풍패지관 서익현 보수, 후백제 유적발

굴 및 학술연구 등을 통해 역사문화를 재조명하는 데 소매를 건어붙이기로 했다. 또 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벨트 사업의 일환으로 전주동학농민혁명파랑새관도 이르면 6월에 선을 보이게 된다.

여기에 시는 지역의 스포츠산업을 강화할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에 탄력을 가하기로 했다. 전주실내체육관과 전주 육상경기장, 야구장 등의 건립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또 나비파크 전용골프장, 혁신도시 다목적체육센터, 서부권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등 생활체육 기반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최라기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국가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된 전주시는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으며, 가장 전주다운 문화를 기반으로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힘들었던 시민들의 일상이 문화를 통해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전주시, ‘여성경제활동촉진 대상’ 시상식서 기초지자체 부문 ‘특별상’

여성일자리 창출 등 기여 공로



전주시가 여성일자리 창출과 일자리의 질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시는 24일 서울 비엔디파트너스 강당에서 열린 ‘제1회 여성경제활동촉진 대상’ 시상식에서 기초지자체 부문 특별상을 수상했다.

(사)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회가 주관한 ‘여성경제활동촉진 대상’은 양질의 여성일자리 창출하고 경력단절여성 등 여성청장년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선도적 역할을 한 지자체를 발굴·포상하려는 목적으로 올해 처음 제정됐다.

시는 여성경제활동촉진 대상에서 ▲여성고용활성화 부분 ▲일·가정 양립지원 부분 ▲고용평등 부분 ▲여성경제활동 촉진 노력 등 심사항목 전반에서 고르게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가정 부분인 여성경제활동 촉진 노력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 시는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와 함께 여성들을 대상으로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

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매년 2,000여 명의 여성구직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왔다.

특히 시는 우수한 여성인력자원이 결혼·출산 등으로 노동시장에서 이탈 시 정서적·기술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하는 점을 고려해 취업인식전환교육과 직업교육훈련 과정 등을 도입, 여성 구직자가 심리적 안정감과 기술적 자신감을 갖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해 왔다.

민선5기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4차 산업시대에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변화에 발맞춰 전문화된 직업교육과 취업지원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시킬 것”이라며 “앞으로도 여성고용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및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대보름맞이 직거래장터 열어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는 25일 송천점과 종합경기장점 등 전주푸드 직매장에서 대보름맞이 직거래장터를 연다.

이번 대보름맞이 직거래장터는 신선한 대보름 먹거리 판매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작지만 알찬 행사로 기획됐다.

먼저 전주푸드 직매장을 방문해 나뭇잎이나 부엌을 구매하면, 오후밤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이벤트가 열린다.

전주푸드 송천점(덕진구 천마산로 130) 앞마당에서는 달집 만들기, 소원지 쓰기, 제기차기, 팽이치기 등 전통 놀이를 즐길 수 있으며, 지역 농산물을 대보름 행운 선물로 받을 수 있는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영애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사무국장은 “이번 직거래장터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열리는 만큼 안전에 더욱 신경 써서 준비했다”면서 “위축된 일상이 조금이라도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민들도 함께 나누고 즐기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평화동 주민 거점공간 ‘온(溫)평’ 개소식

전주시 · 평화사회복지관, 공유주방 · 세탁실 · 회의 · 동아리 활동 공간 갖춰 돌봄 활동 등 진행

평화동 지역민이 지역민을 돌보는 ‘지지케어’ 사업의 활동공간이 문을 활짝 열었다.

전주시와 전주평화사회복지관(관장 성동화)은 24일 민선5기 전주시 복지환경국장, 오평근 전북도의원, 박병술·양영환·이남숙·송승용 전주시의원, 임분희 평화동 주민자치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평화동 주민 거점공간 ‘온(溫)평’ 개소식을 개최했다.

‘온 동네 평화마을’이라는 뜻을 가진 ‘온평(덕적골 3길 56)’은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특정지역구역 공모사업에 선정돼 진행되는 ‘평화동 다시 세우기 프로젝트 : 지지케어’ 사업의 거점공간이다. 면적 95.68㎡(29평) 규모의 온평은 공유주방과 공유세탁실, 회의·동아리 활동 공간 등을 갖췄다.

‘지지케어’ 사업활동가 모임인 ‘마음어울림단’은 공유주방과 세탁실을 활용해 홀몸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말기트(식사세트) 지원사업과 이불 세탁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전주시와 전주평화사회복지관은 24일 민선5기 전주시 복지환경국장, 오평근 전북도의원, 박병술·양영환·이남숙·송승용 전주시의원, 임분희 평화동 주민자치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평화동 주민 거점공간 ‘온(溫)평’ 개소식을 개최했다.

민선5기 복지환경국장은 “이 사업은 평화동 주민이 주축이 돼 지역 내의 문제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간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김윤상기자

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 무주택 청년 모집

전주시, 내달 5-9일까지

전주시가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세보다 50% 이상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한다.

시는 다음 달 5일부터 9일까지(주말 제외) 효자동 전주대학교 인근에 위치한 청년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청년 12명을 모집한다.

공급 형태는 다가구주택 총 7호로, 1인 단독거주형과 2~3인 공동거주형 등 2가지다. 임대주택의 경우 학업과 취업 준비 등 이사가 잦은 청년 주거 특성을 고려해 냉방고와 세탁기, 에어컨, 책·걸상 등이 기본적으로 구비됐다.

입주 자격은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등 만 19~39세 이하 청년이다. 아동복지시설 퇴소(예정)자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구 등은 1순위로 신청 가능하다.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 평균소득의 100% 이하(2인 437만원, 3인 562만

원)이다. 3순위는 본인의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 평균소득의 120% 이하(317만원)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임대 조건은 주택별로 다르나 임대보증금은 50만원 정도다. 월 임대료는 시세의 50% 이하 수준으로 저렴하다. 임대 기간은 2년으로 재계약 요건 충족 시 2회에 한해 재계약할 수 있다.

희망자는 전주시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은 입주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지참해 전주시청 주거복지과(완산구 노송광장로 10, 6층)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주택 소재지와 세부 임대조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격과 소득, 자산 감증을 거쳐 오는 4월 중 입주대상자를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입주 가능 하다. 향후 시는 대학생들이 많이 거주하는 전복대 인근(금암동)에도 총 24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상반기 중 리모델링을 진행해 오는 6월 이후 입주를 모집할 방침이다. /김윤상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7)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